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배럴에 100달러를 넘어 서는 것이 '유가 사상 최고치 갱신'이라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제는 15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뛰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 차가 줄어, 속도가 빨라져 좋다.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왜 차는 끌고 다녔던 거야!"라며 '고유가 사태'를 즐기고 있다는 씁스레한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어렵게 중고 화물차 한 대 마련해서 골목길 돌아다니며 목청 높여 애를 써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오던 과일장수·생선장수와 양말장수는 온 가족이 목에 풀칠하고 아이들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다 더하여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7월초부터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이어져서 '전력 수요 최대 돌파' 뉴스가 연일 보도된다. 나라 바깥에서 불어오는 '고유가'의 거센 바람에다가, 나라 안쪽의 좋지 못한 바람이 부딪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자칫 이 회오리바람에 우리 모두 하늘 높이까지 끌려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희뿌연 정도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듯이 고유가의 피해는 언제나 마지막 하청 단계에 속한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진다. 옛날 서민들은 세계경제와 무관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제 강원도 산골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번역가

에너지 위기 ... 공멸의 길

짜기 갑자농사꾼, 서해 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양말장수 아저씨나 모두 중동 정세, '에너지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추세와 미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생사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다고 "세계화는 나쁜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살 수 있는가? 아니다. 쟁기로 밭을 갈고,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등짐을 지고 산골마을까지 물건을 팔러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동 정세, 중국·인도의 정책 방향, 미국의 대외 정책과 미국 대

통령의 개인 사정까지 살펴가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거인들 틈새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과 똑같이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많이 먹고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아니다.

그 동안 생명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발전'으로 여겨지고, 그런 악업을 많이 지어온 나라들이 부를 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여 '비만은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저 거인들은 언젠가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져 폐양이 되고, 암이 되어 몸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 길은, 적게 먹고 몸집을 적게 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곧 탐욕을 줄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서 함께 살아 가고 있는 동업종생들을 희생하며 우리 인간만의 탐욕을 채우려다가는 우리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에서 아내와 아이들 다섯을 잃은 어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발을 사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다가는 "기름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기름을 사서 보일러를 돌리고 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아할경>주석서인 <청정도론>에서는 말한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굶주림의 시대가 온다. 인간의 분노와 증오가 가라 앉혀지지 않을 때 학살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 한다. 인간의 무지가 한계를 넘어서면 나쁜 유행병의 시대가 열린다."

에너지 위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잘 사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밤이 되어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된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으로 불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 재소자의 어두웠던 마음에 부처님법의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감사한 때도 드물다. 한 불자의 마음에 밝은 자성의 빛이 충만하길 발원하며 그의 다짐을 나누어 본다.

“하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72 어두운 마음에 뜨는 달

법사님, 저는 말이죠, 어릴 적 너무나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도 잔정이 많고, 사람을 잘 믿곤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사촌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만난 지가 워낙 오래되어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소식을 친척을 통해 들곤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부모님에게서보다는 누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누나가 다니는 대학교의 기숙사생, 각종 행사 때마다 저를 꼭 데리고 다닐 만큼 저를 참 귀여워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누나를 생각나게 만드신 분이 바로 법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법사님께 더 깊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님을 뵈 때마다 이처럼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떠올리곤 하였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야하니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디 어느 곳에 있던 부처님의 뜻과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늘 지금 이런 마음과 같이 생활을 할 것입니다.

달 같은 불심을 발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한' 사람 같이만 살 것입니다.

법사님 말씀처럼 세상에는 저보다 더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를 보며 살면 울라도 끝이 없듯이, 겸손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아래를 보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다 보면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고 있

습니다.

저 이번엔 한자 급수시험 0급 우수상으로 합격했습니다. 물론 커닝은 안 했습니다. 커닝할 바에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성격입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듯, 잘 참고 이겨내려 하는 불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기에 이만큼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가슴 속에 쌓였던 힘든 일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마냥,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 밖에는 너무나 밝고 커다란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떴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추어 주는 저 달처럼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달처럼 맑게 살고 싶군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겠

지급 시간 새벽 한 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도 졸립지가 않는 것이 부처님의 힘이 이토록 저를 강하게 만드신답니다. 아시겠

사경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그의 마음에 빛을 주신 부처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내면의 부처님 마음을 찾아 공심으로 정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발원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부처님 마음처럼

안녕하세요?

법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내 일처럼 신경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소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제가 걱정되시어 물어보아 주시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님, 저는 사실 지난 모임 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으나 해서 염려도 되고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두가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듯, 자기 다른 삶의 과정을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만큼 이해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에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곳에서의 문제는 그런대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 밖의 일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쉽사리 드러낼 수도 없고 가족들마저도 요즘 들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심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성지관음회

社說

복동포 위한 촛불 안 밝히나?

“이제는 북한 동포가 굶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촛불을 켜주세요.”

7월 10일 현재 단식 46일째를 맞은 정동회 법률 스님이 지난 주 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스님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운하 반대를 강도 높게 전개한 국민을 향해 이제는 북한의 동포들이 처한 10년만의 대기근에도 관심을 갖자고 호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월 8일 정동회는 북한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9개월여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다시 열려 10일 현재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루 앞서 9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가 폐막했다. 이 회의에서는 G8 정상회의 및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원유 식량가격 급등, 핵 비확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 세계적 관심사는 급등하는 원유 값과 이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곡물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아 발생 등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 고난의 한 가운데 북한이 있다. 북한은 지금 대량기아사태 발생의 초기단계에 휩싸여 있다. 법률 스님의 단식은 '나라도 아껴야 한다'는 절박감 그 자체다. 서명운동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곡식 한 톨을 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내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참다운 불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일부 폐지의 허점